

빛가람혁신도시 특공 아파트 '먹튀'...시세 차익만 334억

2248호 중 873호 전매·매매...기속사 생활하고도 649명 당첨 계획인구 5만명 중 3만8400명 그쳐...달성률 혁신도시 최하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계획인구 달성률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이전 기간 직원들이 당첨받은 특별공급 아파트의 40% 가량은 분양권이 전매되거나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인석·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이전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담겼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은 지난 7월 말까지 총 2248호에 달하는 특별공급 아파트가 당첨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38.8% 비중을 차지하는 873호는 전매·매매됐다.

'특공' 아파트 441호는 분양권이 전매됐고, 432호는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도 각각 212호, 93호에 달했다.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공기업 직원들이 아파

트를 전매·매매하면서 거둬들인 시세차익은 총 334억원에 달했다.

전매·매매된 873호의 분양가는 2093억원이었지만 이후 거래된 가격은 2427억원으로, 334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1인당 차익으로 치면 3820만원을 아파트 '특공' 덕분에 가져간 셈이다.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는 이전 직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정작 3명 중 1명 꼴로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인사발령됐다.

나주 혁신도시 특별공급 수급자 가운데 퇴직자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발령난 직원 비중은 28.7% (870명 중 250명)로 집계됐다.

특별공급 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의 타 지역 거주율을 비교해보니 한국농어촌공사(54.5%)는 울산 근로복지공단(80.6%)과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75.2%)에 이어 전국 115개 기관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농어촌공사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10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명은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이어 ▲한전KPS 42.0%(69명 중 29명) ▲농식품부무연교육원 40.0%(5명 중 2명) ▲한국전력 36.8%(234명 중 86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5.7%(14명 중 5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0.0%(20명 중 6명) ▲한국인터넷진흥원 28.6%(7명 중 2명) ▲전력거래소 25.9%(27명 중 7명) ▲국립전파연구원 23.1%(26명 중 6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9%(48명 중 11명) ▲우정사업정보센터 18.4%(76명 중 14명) ▲한국콘텐츠진흥원 14.3%(21명 중 3명) ▲한전KDN 13.0%(146명 중 19명) ▲농림수산물식품기획평가원 8.3%(24명 중 2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1%(14명 중 1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3%(38명 중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타지역 거주율은 30%(7581명 중 2277명)로 집계됐다.

회사 기속사에서 지내면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이른바 '혁신도시형 재테크' 사례도 드러났다.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업·기관이 마련한 기속사에 거주 중이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당첨자는 649명으로, 전국 10개 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경.

기속사 거주 직원 2375명 가운데 아파트에 당첨된 비중이 27.3%에 달한 것이다.

한국전력 기속사에 사는 직원 967명 중 26.1%에 달하는 252명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한전KDN은 379명 가운데 102명(26.9%), 한국농어촌공사는 353명 중 94명(26.6%)이 아파트에 당

첨되고도 기속사에 살고 있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나주 혁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3만8400명으로, 계획인구 5만명의 76.8%를 달성했다.

이 같은 달성률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활성화 협약

광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노후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4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고령층과 중장년층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니어 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전담 창구와 상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택연금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공동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안정적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다. 만 55세 이상 고령층과 중장년층이 거주하는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역모기지론)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이용현황' (3월 말 기준)에 따르면 올 들어 광주·전남 가입자는 총 2403명으로, 전년 말보다 176명(7.9%) 증가했



송중욱(왼쪽) 광주은행장과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지난 24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다. 광주는 1538명에서 1655명으로 117명(7.6%), 전남은 689명에서 748명으로 59명(8.6%) 늘어났다.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 가입자 증가율 6.8%(7만8379명→8만3680명)를 웃돌았다.

송중욱 은행장은 "지역 내 고령층과 중장년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 36시간 미만 '불완전 취업자' 53만명 돌파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에 머물러 있는 이른바 '불완전 취업자'가 지난해 지역에서 53만명을 돌파했다.

2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광주 25만 3000명·전남 28만5000명 등 53만8000명으로, 1년 전(41만5000명) 보다 12만3000명(29.6%) 증가했다.

광주는 지난해 8월 18만1000명에서 올해 25만 3000명으로, 전남은 23만4000명에서 28만5000명으로 각각 7만2000명·5만1000명 늘어났다.

광주·전남 단시간 근로자는 전담(38만2000명)에 비해서는 15만6000명(40.8%) 급증했다.

8월 전체 취업자 175만1000명 가운데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은 30.7%로, 지난해 4월(31.3%) 이후 1년 4개월 만에 30% 선을 넘겼다.

광주·전남 단시간 근로자 수가 50만명을 넘긴 건 관련 통계를 낸 1998년 이후 2010년 2월, 2011년 9월, 2013년 2월, 2014년 8월, 2016년 8월, 2017년 8월, 2018년 6월, 2018년 8월, 2019년 8월, 2020년 4월, 2021년 8월 등 11차례에 불과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신보 '보증사업평가' 1위

전국 첫 코로나 전용 심사서 개발 등 호평

지난해 9355억원 대출보증을 지원한 전남신보보증재단이 '2021년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이 평가는 연간 보증정책지원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전국 16개 지역신보를 대상으로 실시·발표하고 있다.

전남신보는 1위 달성으로 은행 출연금 21억원을 확보하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0억원 이상 신규 보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초 코로나19 전용 심사서 개발', '신속 대응 태스크포스 운영'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2개월에 달하던 보증서 발급 소요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기도 했다.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 때는 구례, 나주, 담양, 곡성 등에 윈스톱 현장 지원반을 운영하며 무등록 사업자 지원 등을 펼쳤다.

이는 중기부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전남신보는 지난해 코로나19 경영난 등의 여파로 3만6102개 업체에 9355억원 규모 보증을 지원했다. 재단 설립 이래 최대 규모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인당 월 최대 10만원 환급 내달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

다들답부터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지급 기준과 사용자 등 카드 캐시백 정책 세부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2분기에 자신이 가진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합쳐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에 카드로 153만원을 쓴 103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982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5	7	13	20	21	44	3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023,630,672	8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49,771,699	81
3	5개 숫자일치					1,375,472	2,931
4	4개 숫자일치					50,000	139,208
5	3개 숫자일치					5,000	2,291,933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시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자금자동이체, 신탁 공제가입, 공과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탁제휴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세전 / 만기해지

18개월 연 1.77% 세전 / 만기해지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 예금보통대상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축은 신탁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자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탁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266-4150 (광주 북구 문흥로 38)

양산지점 573-4150 (북구 양산로 59)

운암지점 528-4150 (북구 북문대로 88)

동림지점 513-4150 (북구 동문대로 238)

매곡지점 572-4150 (북구 설죽로 315번길1)

침단지점 576-4150 (북구 침단천로 99번길2-2)

동광주지점 264-4150 (북구 동문대로 187)

각화지점 263-4150 (북구 동문대로 283, 285)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